

평안촉박

2021년 7월 5일 제 32기

‘돌파프로그램’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git.io/fgp88>
안드로이드판 : <http://git.io/fgm88>

남동생이 복을 받다

남동생은 양어전업호이다. 나는 그를 만날때마다 파룬궁진상을 말해주고, 호신부도 선물했는데 매번 그는 흔쾌히 접수했다. 다시 동생을 만났을때 그는 기뻐하며 말했다. “누님, 저는 원래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때 온몸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질병도 치료하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나는 “너는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해, 자비하신 사부님께서 너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어.”라고 말했다.

2012년 7월 21일, 우리 지역에 홍수가 지면서 양어장의 물고기가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져 수많은 양어전업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신기한 것은 남동생네 양어장 물고기는 한마리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사실 남동생이 진상을 똑똑히 알고, 파룬따파가 좋다 (法輪大法好)고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신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정말 다르다.



젊은 기업가 스트레스 해소 비결을 나누다



▲ 안정하고 상서롭다: 안더리야는 호수에서 연공하고 있다. 오른쪽 위의 작은 사진: 안더리야는 남편, 아들과 함께하다.

현재 39세인 스웨덴 기업가 안더리야아니얼푸하거는 2010년에 남편과 함께 Fenix Film 영화제작 회사를 창립했다. 회사일은 매우 분망했다. 20여세때 그는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대폭 줄었고, 늘 끝없는 회사일에 시달렸다. 그는 경상적으로 화를 참지못해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기관지염에 걸렸고, 밤이면 늘 기침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경상적으로 피로감을 느꼈다.

“후에 저는 위장염에 걸렸는데 음식을 조금만 섭취해도 위는 칼을 삼킨 것처럼 고통스러웠으며 태양 열마저 찌르는듯 아팠습니다. 매

일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등부위의 고통도 견뎌야했습니다.” 안더리야는 말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저의 생활을 반드시 바꾸려면 스트레스 감소가 가장 우선이라고 의식했

습니다. 마침 이때 친구가 저에게 <파룬궁 (法輪功)>을 추천하면서 이책은 사람의 신심에 이득을 준다고 했습니다.”

안더리야는 줄곧 철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의 부친은 불교신도였다. 그는 스스로 몇년간 무술을 배우면서 동방문화를 요해했다. <전법륜 (轉法輪)>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는 인생 중 많은 의혹을 풀었고, 아주 빨리 파룬궁 5조 공법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선인 (真、善、忍)'을 자신의 인생준칙으로 삼고 점차 다급한 성격도 개변했는데 신체도 따라서 좋아졌다. “저의 등 고통은 사라졌고, 제가 평온해 지니

위장염도 사라졌으며 담배도 끊었습니다. 3개월간 수련한후 저의 몸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평온할수록 저는 자연과 통하는 것을 느꼈으며, 가끔씩, 가부좌를 틀때면 제 몸안의 매 세포

“**마음이 평온할수록 저는 자연과 통하는 것을 느꼈으며, 가끔씩, 가부좌를 틀때면 제 몸안의 매 세포까지 평온하고 상서롭게 느껴졌습니다.**”

▶ 2면에 계속

특별한 졸업축복

6월의 졸업계절에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친구그룹(朋友圈)에 아이의 졸업사진을 올린다. 금방 유아원에서 졸업한 재간둥이가 있는가 하면 졸업모자를 쓴 대학생도 있다. 매 한장의 웃는 얼굴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 학부모와 친구들은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서로 축복했다.

대만 고승 국립 중산대학 파룬따파(法輪大法) 동아리의 파룬궁수련생은 곧 졸업할 선배들에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선물했다. 2015년 6월 13일, 그들은 졸업식에서 7일간 파룬따파의 주 활동을 개최하여 대법의 아름다움을 사생과 온 손님에게 알렸다. 수련생들은 『진선인 국제미술전(眞善忍 國際美術展)』, 대법 진상그림전, 동아리 성원의 수련이야기 영상, 중국복장 입기체험, 재미있는 유희 등 다양한 항목으로 주목을 끌었고, 적지않은 사생들이 참가했다.

“나는 오늘 가장 의미있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에과도르의 한 여학생은 중국복



▲ 카이팅은 학생들에게 『진선인 국제미술전』 작품을 소개한다.

장을 입고 즐겁게 미술전 작품앞에서 사진을 찍고나서 앞으로 매일 시간을 비워 연공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교수 Fernando Ojeda와 그의 친구 Julio Mayor는 ‘진선인(真、善、忍)’이 세 글자를 듣자마자 “이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라고 연이어 말했다. 그들은 『진선인 국제미술전』 작품을 끝없이 찬성하면서 또 수련생에게 가부좌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 가부좌의 조용함과 아

름다움을 체험하는 전과정에서 그들은 아주 흥겨워했다. 파룬궁수련생이 대륙에서는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생체에서 장기까지 적출당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너무 상상할 수 없다면서 즉시 생체 장기적출 반대서명에 서명했다. 그리고 진일보로 파룬궁을 요해하고 성원 할 것을 표시했다.

독일에서 온 Lina는 『진선인 국제미술전』을 관람한후 감격하며 말했다. “대만과 대륙은 같은 혈연을 가진 배경입니다. 중국대륙은 대만처럼 사람의 신앙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Lina는 반박해 서명을 한 다음 말했다. “나는 오늘 가장 의미있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한 대륙에서 온 교환학생은 여러차례 전람구를 지났는데 수련생들이 열정적으로 그에게 소개했다. 진상사진을 본후 그는 원래 중공선전의 왜곡으로 파룬궁에 대해 부정적이던 인식을 개변하고 의혹도 풀었으며 태도가 많이 선해졌다. 그는 한바퀴 둘러본후 “원래 파룬궁은 아주 좋은 공법이였네요.”라고 표시했다.

지팡이를 버린후의 가벼운 마음

국제 경영 관리연구소 석사반 학생 카이팅(愷庭)은 자신의 수련후의 변화를 나누었다. 그는 수련

▶ 3면에 계속

◀ 1면의 계속

까지 평온하고 상서롭게 느껴졌습니다.”

안더리야는 어린 아들이 있어 회사일 외에 가정도 신경써야 했고, 가사도 꾸려야했다. 그는 말했다. “가끔씩 저도 속상하고, 비통하고, 혹은 분노를 느꼈는데 이런 파동은 모두 내심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몸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낸다면 마음이 즉시에 통쾌하고 밝아지면서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알게됩니다.”

그와 남편은 영화회사에서 오락프로 외에도 많은 인권과 언론자유 기록편과 단편을 제작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폭행,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요해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공이 어찌이토록 전력을 다해 선량한 수련생을 박해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더리야는 말했다. “우주의 준칙 ‘진선인(真、善、忍)’으로 자신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이 어찌그들을 구타하고 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 2면의 계속

하기 전에 한달간 불면에 시달렸고 예전에 그가 태북대학을 다닐때 교통사고로 왼쪽발이 분쇄성 골절되고 인대가 절단되는 바람에 두발이 대략 5센치 차이가 생겨 지팡이로 보행을 보조해야 했으며, 오래동안 서고 앉고, 옆드리지 못했다. 서의치료를 받아 석고를 하고, 중의, 민속료법, 정골(整骨), 침구를 받았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병통은 그가 파룬궁수련을 한지 3개월만에 전부 사라졌다. 현재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태북에서 온 친구가 그를 데리고 학교 뒤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유람했는데 그는 마침내 등산도 할 수 있었다.

학생들 사랑 받는 교원이 되다



중산대학에는 국, 중, 소 학

과를 지도하는 사랑동아리가 있다. 기업관리계의 원신(文馨)도 학과보도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수련전에는 어떻게 하면 착한 선생이 되는지를 몰랐는데 보도반의 학생들은 늘 그에게서 욕먹고 울었으며 수업하러 오기도 싫어해서 그 자신도 아주 고통스러워 했다. 수련후 원신은 명량해졌고 ‘진선인(真、善、忍)’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쳤으며, 자신의 성격도 온정시킬 수 있고, 온화하고 애심이 있게 변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으로 되었다. 한 가정교육반의 학생은 그에게 말했다. “가르치는 모든 보도선생중 파룬궁을 배우는 원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괴의병이 기적처럼 사라지다



중산대학 기업관리계의 카이

원(凱勻)은 괴의한 “섬유기통증(纖維肌痛症)”에 걸렸고, 대뇌통각신경실조로 조성됐다고 진단받았다. 이 병에 걸리면 전신이 시시각각 통증을 느끼기에 초조함, 집중력 저하, 그리고 또 더 많은 종합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최후에는 근육이 섬유화, 노화되어 사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진정제로 고통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다. 카이원은 대학에 붙은 다음 휴학하고 더욱 깊은 치료를 받기위해 대만의 크고 작은 병원을 방문했고, 각 종 검진을 받았으며, 심지어 점쟁이한테도 도움을 청했으나 결국 여전히 치료받지 못했다. 반년후 그는 더욱 분명한 생활로 자신의 고통을 잊고싶어 복학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대학 3학년때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연속 7일간 연공점에 가서 매일 3시간의 법공부와 연공을 했다. 괴의병은 신기하게 완쾌돼 이젠 수면제와 진정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는 심지어 3000 미터 달리기도 할 수 있었다.

안구건조증 고통에서 벗어나다

핸드폰, 컴퓨터 사용율이 증가되면서 사람들은 시력저하뿐만 아니라 자신도 느끼기 어려운 질병 _ 안구건조증(건성각결막염)을 유발하기 쉽다. 보편적인 증상에는 안구 피로, 안구 건조, 과민, 안구 충혈, 눈곱 잦음, 심각하면 안구 흐림까지 생겨 바람 혹은 빛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국내 눈사랑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안구건조증으로 발병한 사람이 3

억에 가까워 근시 다음으로 눈건강의 큰 문제로 꼽혔다. 수많은 엄중한 환자들은 거금을 써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럼 또 다른 묘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 파룬궁수련생이 말했다. “저는 2004년 말부터 파룬궁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법의 신기함을 체험해 심각한 안구건조증이 있었지만 법공부와 연공만하면 한갈래 청류(清

流)가 눈에서 흘러내려 두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어 아주 편안했고, 질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쾌 되었습니다.” 아래에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지않고 완쾌된 사례를 봅시다.

<전법륜(轉法輪)>을 읽으면 눈이 아프지 않았다

대만 파룬궁수련생 천옌팅(陳熾婷)은 말했다. 파룬궁수련전 저는 안구건조증, 저혈압, 빈혈등 여러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수술하고,

▶ 4면에 계속

◀ 3면의 계속

태극과 기타기공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고통을 덜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언니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더러 해 보라고 하면서 먼저 <전법륜(转法轮)>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만을 보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나 그래도 한번을 쭉 읽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책을 보면 눈이 아주 불편했는데 <전법륜(转法轮)>을 볼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법공부와 연공을 견지하면서 가끔씩 머리위에 파룬이 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를 20년간 괴롭혔던 안구건조증이 사라졌고, 다른 질병도 점차 나았습니다. 예전의 저는 자신감이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명랑하고 밝아져 사람들과 얘기도 잘 나눕니다. 파룬따파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몇년간 저는 경상적으로 중국유람객에게 진상을 알렸으며 여러분 모두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대만 파룬궁수련생 천옌팅 (陈彦婷)

캄캄한 생활에서 걸어 나오다

저는 대북(台北)의 파룬궁수련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려 신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85년 두아이를 데리고 아르헨티나(阿根廷)로 이민했고, 일년후부터 눈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고,



매번 두달에 한번씩 발작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4년째 되는데 심각하게 악화돼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여러국의 병원을 거의 다 방문했지만 병근원을 찾을 수 없었으며 모든 약은 효과를 보지 못해 눈은 마르고 텅텅한데다 빛만 보면 아팠습니다. 가장 심각할 때 저는 의사의 건의대로 눈을 일주일간 가리고 있었으며 장님처럼 한동안 캄캄한 생활을 했습니다.

타향에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7년째 되는데 저는 대북으로 돌아와 명의란 명의를 다 방문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대북의 한 명의를 방문할 때 그는 저의 고통을 보더니 체질을 바꿔보라며 매일 맞는 링겔에 먹는 약까지 수천원씩 써가며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결국 명

의가 병에 걸려 휴진할 때까지 총 십여만원을 소비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최후 의사는 제가 걸린병은 현재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오직 인공 눈물액으로 병세를 완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나의 직업은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 햇빛이 강렬해 발작 빈도가 빈번해져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했습니다. 매번 발작할 때면 안구는 충혈로 인해 두피까지 저리도록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파룬궁소개를 보고 서점에서 <전법륜(转法轮)> 책을 구매했습니다. 보고나서 저의 마음은 아주 큰 충동을 받았고, 자신의 병은 업력으로 조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룬궁 9일 센터에 참가한 후 인류세간의 생, 로, 병, 사는 모두 업력이 조성했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돼 수련만이 운명의 안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눈의 병증

▶ 5면에 계속

“**법공부와 연공만하면 한달에 청류(清流)가 눈에서 흘러내려 두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어 아주 편안했고, 질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쾌 되었습니다.**”

◀ 4면의 계속

은 차차 좋아져 반년후에는 완전히 나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재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을 믿기 어렵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안구건조증은 파룬궁수련을 통해 완쾌됐습니다.

사촌 동생의 안구건조증이 치료하지 않고 완쾌되다.

한 파룬궁수련생이 말했다. 사촌 남동생이 안구건조증에 걸려 고향의 수많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2만여원을 소비해도 치료되지 않았다. 의사는 동생에

게 한평생 인공눈물액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더 용한 의사를 찾아 보아려 한다고 해서 나는 즉시 동의했다. 며칠후 그는 숙모와 함께왔다. 병원과 예약한 시간은 2틀후 오후에 나는 시간을 다그쳐 대법진상을 알리고 그더러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하면 기적이 생긴다고 알려주었다. 그들 두사람은 모두 아주 소박하고 선량하기에 아주 인정했으며 삼

퇴 (중공의 당 단 대탈퇴) 하고 즉시에 <전법륜 (轉法輪)> 몇 강을 읽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할때 의사는 사촌동생의 눈은 질병이 없고 안구건조증이 근본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가 잘 휴식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의 눈은 아주 좋아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들은 이는 대법을 믿어 받은 복보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문에 숙모도 수련에 들어오고, 사촌동생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법책을 자주 읽는다.

'삼퇴' 해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거짓 아닌 진실이다

금년 1월 3일, 화명 “왕연핑안”이란 한 노인은 대기원 인터넷에 ‘삼퇴’성명을 발표했다:

나의 임자는 1999년전 파룬궁을 수련해서 아주 좋았다. 후에 중공이 박해를 시작한후 자식의 공작에 영향줄까 두려워 포기했다. 10년전 나의 임자는 연공하지 않아 고질병이 도진데다 새병 신장암까지 걸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사망했다.

1999년초 나의 며느리는 간암으로 세상뜨고, 작년 3월 공안계통에서 일하는 아들도 간암확진을 받았지만, 그는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병원에서 제기한 ‘간이식’건의를 거부했으며 한달후 나와 어린 손자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슬프고 절망외에 그래도 손자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작년 9월 나는 불시에 뇌경색진단을 받았다. 입원한지 보름이 되는데 몸 오른쪽 손과 다리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옆칸 병실에서 나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사망해 조용히 들려가는 것을 보고 나는 절망했다. 나 자신도 그들처럼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가여운 어린손자만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괴로울 뿐이었다.

이때 한 파룬궁수련생이 나에게 파룬궁진상 이야기를 들려줬다. 예전에 임자가 수련했기에 나는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대법의 신기함을 믿었다. 그후 나는 하루하루 나아지더니 10일후 퇴원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혼자서 걸을 수 있었으며 오른팔도 점차 물건을 들수 있었다.

“만약 중공의 파룬궁박해가 없었다면 나의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이다. 중공은 중국사람을 박해하는 사령 (邪灵) 이다. 파룬궁이 나를 구해주고 나더러 중공에서 벗어나게 한 은덕에 감사드린다.”

나는 희망이보여 사망의 절벽에서 탈출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중공의 파룬궁박해가 없었다면 나의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이다. 중공은 중국사람을 박해하는 사령 (邪灵) 이다. 파룬궁이 나를 구해주고 나더러 중공에서 벗어나게 한 은덕에 감사드린다.

전염병에 감염될까 걱정하던 비행장은 탈당하다

2020년 1월 24일에 ‘삼퇴’한 왕용 (王勇) 은 말했다. 나는 20여년 당령이 있는 노당원이다. 나는 승급을 빨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해 입당했다. 현재 비행장이다. 이번 무한폐렴이 흉악해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많은 여객을 접촉하기에 전염되기가 쉽다. 이 항업은 고위험직업이기에 나는 아주 두려웠다. 그러나 당위서기 앞에서는 마음을 어기고 태도표시를 했다. “나는 공산당원이다. 영도가 어디에 날라고 안배해도 다 되며 나는 휴식하지 않겠다.” 이 체계에서 이미 거

◀ 5면의 계속

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사실 현재 나는 전염될까 아주 두렵다.

나는 한 파룬궁수련생을 만났는데 나에게 전염병은 눈이 있기에 퇴당하면 독한맹세를 없애버려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나는 공산당에서 탈퇴하는 것을 원하기에 이전에 당위서기한테 제기했었는데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마음으로 동의하고, 명백하게 공산당에서 탈퇴한다면 화명도 된다고하니 너무 좋다.



파룬궁박해를 해 악보받은후

2020년 11월 11일, 단지전(单既贞)은 '삼퇴'성명을 발표할 때 말했다. 나는 촌간부이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모독을 믿었기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집

을 다니면서 파룬궁수련생이 배포한 진상자료를 걸어서 집으로 가져가 태웠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이 사람을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에

보응을 받으며 이런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준적이 있다. 나는 중공에 너무 미혹돼 막무가내로 하다가 나중에 두 손이 마구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때는 접시와 물컵도 잡을 수 없었다.

한 파룬궁수련생은 나에게 선심으로 알려주었다. “당신의 손이 저지른 나쁜일은 세인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죄악이 아주 크기에 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경고이니 더한다면 더욱 큰 재난이 당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응 받은 레를 들었다. 나는 사건의 엄중성을 알고 다시는 나쁜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도 떨리지 않았고, 정상이 되었다. 지금 나는 주동적으로 대법수련생에게서 진상자료를 받아보고 내심으로부터 철저히 중공조직에서 탈퇴하겠다.

나는 탈퇴했고 나는 해탈됐어요

4월 18일 뉴욕 파룬궁수련생이 '4.25'평화청원 22주년 기념 집회에서 대륙이민 황잉저우(黄莹洲)는 '삼퇴'증서를 받았다.

“우리 가문에서 3명이 중공에 의해 박해로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중산의 삼민주의를 찬성해 체포되어 산채로 매를 맞아 사망되고, 할머니도 납치되어 소우리에 감금되고, 부친은 당시 산속에서 겨우 음식을 찾아 요행으로 살았으나, 4_5세밖에 안된 두 삼촌은 집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황잉저우는 말했다. “부친은 줄곧 우리에게 ‘공산당은 토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무리 유망들에 의해 정권을 탈취하고, 기편수단으로 아주 많은 중국사람을 마비시켰습

니다.”

“학교에 다닐때 핍박으로 중공조직에 가입했는데 나올 수가 없었지만 오늘 탈퇴할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마침 나를 묶었던 줄이 끊어진 것처럼 나는 해탈됐고 이런 사악한 물건에서 벗어 났습니다.” 황잉저우는 말했다. “나는 우리가족들의 당한 불행에서 중공의 잔혹한 피비린내를 깊이 알수 있습니다. 중공의 사악한 본성은 시간에 따라서도 개변되지 않기에 더욱 많은 중국사람이 중공조직에서 탈퇴하여 사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중공의 백년간 중국인민에게 가져다준 재난은 거짓선전으로 은폐할 수 없고 백성들의 실제 아픔도 잊어 버릴수 없다. ‘삼퇴’



▲ 황잉저우(黄莹洲)는 '삼퇴'증서를 받아들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공조직에서 탈퇴 할 것을 희망했다.

는 곧 중공의 정신적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공산사령(邪灵)의 독해에서 벗어나 영혼의 해탈과 행복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현재 이미 3.7억명이 '삼퇴'하여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다. 코드찍어 '삼퇴'하기

